

◇ 횡정맥동을 통한 총폐정맥환류이상의 외과적 교정

전홍주, 김응한, 김수철, 이택연, 이창하, 정철현, 이영탁, 박영관, 김종환,
홍승륙

부천세종병원 흉부외과

배경 및 목적 : 수술수기의 발달로 선천성심기형의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으나 총폐정맥환류이상은 다른 기형에 비해 아직까지 사망률이 높은 편이며 성공적인 수술 후에도 후기합병증으로 폐정맥협착이 오는 경우가 5-10%나 되는 난치성심장병이다.

방법 : 1997년 1월부터 1998년 6월까지 본원에서 완전교정술을 시행 받은 총폐정맥환류이상 13례중 심장상형 5례와 폐쇄성심장내형 1례에서 횡정맥동[Transverse sinus approach]을 통한 교정을 시행하였다. 평균연령은 53 ± 48 일, 평균체중은 3.87 ± 1.08 Kg 였다. 평균체외순환시간은 135 ± 22 분, 평균대동맥차단시간은 52 ± 6 분이였다. 초기 2례에서만 완전순환정지[35 ± 4]를 하였고 나머지 예에서는 완전순환정지없이 시행하였다.

결과 : 조기사망은 1례로[17%] 수술수기와 관계없이 좌심실형성부전으로 슬후 14일째에 사망하였으며 나머지 5례에서 수술후 좋은 혈류역학을 볼 수 있었고 합병증은 없었다. 평균추적기간 5.3 ± 1.0 개월 동안 사망이나 폐동맥협착등 만기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.

결론 : 횡정맥동을 통한 총폐정맥환류이상의 교정술은 좋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완전순환정지를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문합부의 뒤틀림을 방지할 수 있는 우수한 접근법인 것으로 사료된다.

책임저자: 김응한(부천세종병원 흉부외과) 발표자: 전홍주(부천세종병원 흉부외과)